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 총장

이른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대학 캠퍼스로 출근하는 것은 교수 생활을 해 온 나의 고요한 즐거움이다. 아침 등굣길, 젊은 학생들이 사리로 배낭을 메고 활기차게 걸어가는 나이 지긋한 분들의 모습이 눈에 띄면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수업 준비를 하시려고 일찍 출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흐트해진다. 그런데 며칠 후 교내 행사에 참여하니 학생 대표석에 (교수라고 착각했던) 그 분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후 사석에서 그 분에게 반학의 이유를 물으니,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딸을 조금 더 정상스럽게 보살펴주기 위해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공부가 재밌고 행복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과 교수들이 수업시간, 시험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어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말을 전해 들으며 새삼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위해 공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은퇴 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

나이 들어 하는 공부의 즐거움

해 늦은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또 다른 모델이 필자 주변에 있다. 연구소에서 평생 연구직으로 종사하며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분이 은퇴 즈음, 평소 소망이었던 아일랜드의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원문 소설을 읽고 소화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60대에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대학 생활 동안 젊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졸업 후 대학원까지 진학하였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직접 아일랜드에 가보고 소설의 배경이었던 더블린을 방문하여 작가의 하숙집, 애용하던 카페, 서점에 가서 작가와 시간을 초월한 공감대를 느끼는 경험을 통해 생애 최고의 성취감과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재취업, 고령자 창업, 재교육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퇴직자 스스로 은퇴 이후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퇴직연령은 평균 50세에 머물러있어 은퇴 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상에 치여 못했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사회변화를 고려하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하다. 은퇴 후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구체화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지역 교육기관(대학)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본인이 꿈꾸고 싶짜로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

하려는 도전이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부를 시작해 보려는 도전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 학생들이 있는 밝고 활기찬 캠퍼스에 발을 디디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본보기가 되고 있는 분들처럼 본인의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늦은 나이에 공부하려는 분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고등 교육기관, 지자체 등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조금 더 나아가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형태의 성인학습자 교육을 통한 소단위 이수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퇴직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고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서로가 함께 공부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필자도 젊지 않은 나이에 변화를 위해 용기를 내고 실천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100세 시대, 인생 절반 이상을 살아온 시점에서 조용히 내 마음의 소리를 한 번 들어봐도 좋을 것이다. 떠밀려 주변의 것대와 의무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마무리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나만의 공부를 찾아서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이 들어 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만끽하다 보면 생가 주는 또 다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새로운 꿈을 찾아 캠퍼스를 누비는 만학도를 만나면 가장 따뜻하고 반가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싶다.

종교칼럼

화해와 일치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다. 가톨릭교회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6·25 전쟁의 아픈 상처가 있는 6월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미사를 드리면서 분단된 우리나라의 평화와 공존,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노력하는 달이기도 하다. 6·25 전쟁 전에는 북한 지역에 가톨릭교회의 전교가 꽤 활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는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든 간간을 무너뜨렸고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여 년이 지나고 있다. 언젠가 남북이 평화를 이루고 자유로운 왕래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비록 작지만 노력하고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남북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통일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 대상 통일 여론조사'의 결과가 매우 인상적이다. 통일의 필

요성에 대해 53.8%가 응답했지만,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40.0%로 조사되었다.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일반 성인의 응답률보다 20% 가까이 낮게 조사되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높게 조사되었다. 남과 북이 협력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이 또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통일은 정말 어려운 것인가? 한민족이었던 남·북의 관계가 계속 갈라져야만 하는 것일까? 남과 북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화해와 일치보다 단절된 의견의 충돌이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는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지난 6월 4일, 정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남과 북이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전체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버렸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모두 우발적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 정부의 합의서에 대한 효력 정지 의결조치로 인해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합의서 효력 정지를 의결해 버린 것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평화라는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본다. 평화(平和)란 '평온하고 화목하게나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는 평온함 또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힘에 의한 평화는 가능한

가? 서로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한쪽만을 위한 평화, 다른 한쪽은 짓밟히고 억눌리고 파괴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평화라는 이름을 가질만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70여 년, 결코 짧지 않은 분단의 역사이다. 그러나 분열과 다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화해와 일치의 물결이 있었고 그 아름다운 금강산도 방문했었던 기억도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평화를 이룬다면, 우리 민족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려 노력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평화 그리고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 어갈 수 있다.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숭고함을 기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톨릭교회는 세상이 함께 예수님의 평화와 자비 그리고 화해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 성심 성월'인 6월을 보내면서 평화를 위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일치를 조성하기 위해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고한다. 6·25의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가톨릭교회가 언제나 힘을 얻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기고

평화를 보내면 평화가 온다



박진우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6월 15일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역사적이자 중요한 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을 대표한 두 정상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남북의 통일 방안에 공동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협력에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벌써 24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두 정상이 만나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고 악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정상회담 이후 수차례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도 대규모로 성사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2006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6·15공동선언 발표 6월 기념 민

족통일대축전'이 열렸다. 당시 축전의 큰 기조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6·15공동선언 실현하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이룩하자였다. 6월 14일 오전 광주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 60여명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비가 오는 와중에도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많은 환영 인파가 모여 개막식 및 남북해외합동예술공연에 함께 했다. 이후 각종 축하공연, 학술회의, 상봉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 기사는 이것을 '통일월드컵'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트인 한반도의 평화 물꼬는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과 2018년 4·27판문점 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2020년대에는 남북관계발전법까지 제정되었다. 이후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광명, 포천, 강원도 춘천, 고성, 경상남도 거제, 광주 남구 등 전국 9개 지자체에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도 개설됐다. 2024년 현재는 경기도 광명구 광주 남구 지자체 2곳만 남아있다.

하지만 2024년 현실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남북의 장벽이 너무나 높기만 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과 북의 '풍선전쟁'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웃음거리로 치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의 위협으로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뿐이다.

지난 12일 광주YMCA 무전관에서 6·15공동선언실

천 남북위원회 광주본부와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이하 단체)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두 정상이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단체는 "남북은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국민이 주인이 돼 평화를 지키며 후손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 아이도 아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듯, 남과 북이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대북전단, 오물풍선, 확성기 등을 당장 멈춰야 한다. 더 이상의 대결과 위협 행동은 남과 북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74년 전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여아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정치인 누구라도 이 불안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평화를 보내면 평화가 온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평화를 위해 그 어느 곳이든/ 다시는 전쟁 없길 바래/ 전쟁은 이제 그만 눈물도 이제 그만/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어찌 전쟁을 말할 수 있나/ 평화를 위해"(노래 '평화를 위해' 가사 중).

6·15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앞두고 이 노래 가사처럼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함께 평화를 보내 평화를 맞이하자.

社說

지진 취약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 서둘러야

그제 부안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학교와 민간 건축물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께 전북 부안군 남부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각 23건씩의 유감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역민이 지진 공포를 경험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건축물 가운데 상당수가 내진설계에 취약해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이뤄진 건축물 비율(내진율)은 각각 23.2%, 10.6%에 불과하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광주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82.3%(1024동 중 834동)에 달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22.8%(11만5903동 중 2

만6401동)에 그쳤다. 전남은 54만195동의 내진설계 대상 중 5만7189동만이 내진보강을 완료했다. 또한 전남 공공기관은 51.6%(2339동 중 1208동)의 내진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0.4%(53만3905동 중 5만5981동)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학교의 내진 성능도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지역 학교 건물은 총 1606동이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912동이다. 전남은 총 8129동의 학교 건물중 2439동이 내진설계를 완료했다.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의 '부안 지진'으로 광주·전남도 대규모 지진 발생권에 들게 됐다. 이젠 더 이상 안전지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국가 차원의 방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약 계층·영세 자영업자 옥죄는 최저임금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최근 조사한 '2024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 모니터링'이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는 사업장이 1년 사이 크게 줄었다는 경기침체가 취약 업종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를 옥죄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가 올해 4~5월 광주지역 노동자와 사업주 48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 준수율은 86.9%로 1년 사이 5.6%나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준수율은 97.5%였지만 이른바 취약계층인 프리랜서(73.9%), 노인 노동이 많은 아파트 건물 경비(74.2%), 청소미화(77.5%), 청소년알바가 많은 편의점(84.6%) 순으로 낮았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최저임금 준수율이 지난해 92.5%를 찍은 후 올해 급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불가, 고금리 등으로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최저

임금을 받지(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절반인 50%가 사업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이하의 지급은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지만 사업주에게도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후 감원을 했다는 사업주가 17.2%로 1년 만에 7.3%나 증가했는데 이들의 60%는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일을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아졌다는 이번 조사는 경기침체가 취약 업종의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취약 업종 사업주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라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못 쥐 고용까지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無等鼓

김치찌개는 죄가 없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손수 김치찌개를 끓여 출근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행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계란말이를 요리했고 대통령실 수석과 실장들은 고기를 굽기도 했다. 20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행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식사를 하면서 국정 현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지어 없었던 게 비난의 핵심이었다. SNS를 통해 요리하는 윤 대통령과 줄을 지어 밥 그릇을 입에 물고 암전 히 서 있는 게 사진이 합성되기도 했다. 합성 사진에는 "더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의 사정은 이랬다. 20여 개의 대형 식탁에 기자들이 10여 명씩 나눠 자리를 잡았고 식탁 마다 대통령실 수석과 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짧은 대화 형식의 환담을 나눌 기자도 사전에 선정됐다. 기자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의 일화들이 이야기하거나 출산을 앞둔 심정을 털어 놓기도 했다. 물론 날카로운 현안 질문은 없었다. 앞서 진행됐던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는 성격이 조금 달랐다.

취급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은 함께 식사를 하는 의미가 강했다. 대신, 식탁 별로 비보도를 원칙으로 한 대통령실 실장·수석과 기자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마침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는데 김치찌개 현안을 함께 먹던 실장과 수석들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강 시장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테이블을 돌며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전남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연륜인을 만난 윤 대통령은 광주 지역의 세세한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런 자리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강조했다. '문제의식'만 강조한다면 서로 다른 생각의 거리를 좁힐 기회마저 사라질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극명한 양극 체제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그럼, 이날 김치찌개 맛은 어땠을까? 대학가나 고시원 인근 식당에서 파는 딱 그 맛이라고 할까.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